

한편의 노래를 놓고서도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에 대하여 참으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는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그대로 담겨진 정말 좋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에 담겨진 깊은 뜻을 새겨볼줄 알아야 한다고, 노래가사에도 있는것처럼 지금 인민들은 우리 당을 자기들의 삶을 빛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품이라고 절절히 노래하고있다고.

일군들의 귀전에는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처럼 정을 다하여 천만인민의 삶을 빛내여주는 어머니당의 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어머니 우리당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노래의 구절구절에 그대로 반영되어있기에 사람들 누구나 이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며 어디서나 즐겨부르고있는것 아니던가.

일군들의 얼굴에서 이런 심정을 읽으신듯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은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에 담겨진 뜻을 마음속깊이 새기고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뜨거운 정으로 이어지게 하며 인민들이 당의 품을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게 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당을 따르는 인민의 진정을 이 세상 가장 소중한것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한편의 노래를 통하여 일군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되새기며 일군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대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